

이 책의 책

회경론(廻經論)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칭송 받는 용수보살의 대표적인 논서인 『중론』의 법공(法空)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저술된 회경론(廻經論)을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범어·티베트어·한문 대역이므로 이 역본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일별할 수 있다. 공(空)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공(空) 사상은 허무주의가 아닌가" 하는 따위의 비관에 대해 치밀하게 해명하고 있는 회경론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 하겠다.

용수 지음/ 김성철 역주
A5신 하드커버 40쪽
값 18,000원
경서원

티베트의 지혜

티베트에서 태어난 이 시대의 위대한 영적 스승 가운데 하나인 소갈 린포체의 삶과 죽음에 관한 가르침을 담은 책이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런 일부로,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멸의 순간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런 성취의 순간임을 일깨워 준다.

소갈 린포체 지음
조근석 옮김
A5신 하드커버 65쪽
값 20,000원
민음사

위빠싸나 33일

제목 그대로 33일에 걸쳐 위빠싸나의 세계로 인도하는 수행 지침서이다. 마치 얼굴을 마주하고 가르침을 주고 받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구체적이고도 자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 끝에, 수행 과정에 부딪치게 되는 갖가지 문제점을 질문 응답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어, 선지식을 가까이할 수 없는 현령의 불자들에게 아주 반가운 책일 것 같다.

법산 지음
46 번갈 29쪽
값 7,000원
우리글판사

한국 건축 미술사 초고

일제 강점기에, 우리 나라 미술사와 미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우현(又玄) 고유성이 20대에 쓴 원고를 후학들이 정리하여 묶은 것인데, 우리 건축을 미술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최초의 연구서이다. 상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건축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건축학도나 전통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다.

고유성 지음
A5신 하드커버 307쪽
값 13,000원
대원사

원효

원효라는 산의 높이와 넓이는 과연 얼마일까? 수많은 사람이 오르고 또 올랐지만 여전히 미답의 공간이 대부분이다. 아마도 사료의 절대 부족과 신비화된 대중적 이미지 때문은 아닐까? 이에 역사학자인 지은이는 역사주의의 관점에서 보편적 사유 체계로서의 원효 사상을 밝히고, 거사의 모습에서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형을 찾아 나간다.

남동진 지음
A5신 348쪽
값 10,000원
새누리

경허

근세 한국 불교의 중흥자로 일컬어지는 경허 스님의 굴곡 없는 삶과 위대한 깨침의 세계를 경건 형식으로 담은 책이다. 지은이는 경허 스님의 삶을 통해 두 개의 화두를 탐구하고 하는데, 존재의 본질과 그 실상을 깨달는 것이 제1의 화두이고, 새 천년의 깨달임 제2의 화두이다. 새 천년의 깨달임을 선(禪) 사상에서 찾고 있다.

권동중 지음
A5신 300쪽
값 10,000원
관심사

수미산

현대불교신문에 4년 가량 연재한 것을 묶은 장편소설. 이 소설이 말하는 수미산이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산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산은 무시간적(無時間的)으로 존재하는 산이기도 하다. 우리가 사는 시바 또한 수미산의 한 귀퉁이일 수밖에 없고 보면, 따라서 이 소설은 수미산을 배경으로 해서 중증무진의 스펙트럼을 이루는 인간의 예기인 셈이다. 그리고 그 인간은 곧 수미산이다.

고문 지음
A5신 1·2 각 338·41쪽
값 각각 6,000원
대원정사

우리 시대 건축 이야기

"건축가 집원의 개발시대 현상"이라는 부제가 말해 주듯이, 한국 현대 건축의 현장에서 몸으로 쓴 책이다. 그런 만큼 발 냄새가 흠뻑 배어 있다. 그렇다고 공사장의 분위기를 옮겨 놓은 책은 아니다. 오히려 '동수리'나 '종교'를 건축과 연결시켜 언급할 만큼 인문학적 현안이 깊다. 우리의 건축 문화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새로운 '눈뜸'을 가능하게 한다.

김현 지음
A5신 하드커버 80쪽
값 8,000원
불교당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

미국 출신의 동양미술사학자가, 타지기를 삼과 곡경으로 삼아 깨난 한국 문화 발굴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학자로서의 엄정한 사실 추구 정신이 어우러져 있어 재미와 통쾌함을 함께 느끼게 한다.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 문화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열린 세계로 나아가 것인가를 일러 주는 값진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은 카타 코발 지음
김규국 역주 옮김
A5신 448쪽
값 17,000원
북교과

《스태디컬러 찾아가기》

세간의 도리로 심지(心地)를 밝힌다
죽창수필(竹窓隨筆)



윤서 주경 지음, 연관 옮김
A5신 95쪽 / 불교출판부

책(冊)이 깊다 보면 가끔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사를 할 때의 곤욕이 다 연한 것이겠지만, 참으로 좋은 책을 만나고는 혼자만 봤으면 좋겠다는 식의 유치한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여간 찜찜하지 않다. (아디 그럴 수 있는 책이 있거나 할까?) 그러나 이 책 『죽창수필』에서는 책 읽는 기쁨에 더해 책 읽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었다. 심지어는, '별고' 책들은 너무 어렵고 고루해 하는 따위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책을 알세워, '정말 당신은 불교 책을 못 읽나'고 그런 소리를 하느라 책 고르는 안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하며 공박까지 해왔으니 자만치고는 좀 넘었다 싶다.

『선관핵진』으로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된 윤서 주경(1535~1615) 스님이지만 이 책 『죽창수필』에서는 한결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야말로 붓 가는 대로 쓴 듯한 400편이 넘는 이야기가 주는 원시적 친근감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그 뜻의 융통성은 배어난 문장기라도 감히 다가서기 힘든 경지를 보여 준다. 간결한 참구를 담부하는 한 구절을 보자.

무심히 던진 듯한 말 속에 담긴 골계미는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능히 뛰어 넘는다.

"지금은 우선 입을 다물고 다만 본참화두(本參話頭)를 참하여 온 힘을 기울일 일이다. / 만일 깨닫지 못한 것을 근심할 뿐, 깨달은 후에 말할 줄 모를까는 염려할 일 아니다."

"자극한 말은 꾸밈이 없다"고 했다. 스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 그러나 그 격은 마치 태산과 같아서 요란스런 움직임 없이도 묵신을 조복한다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나는 죽창(竹窓) 아래서 글을 써 내려 가는 스님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정경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본다.

"사바로 열린 직멸의 공간."

분명 스님의 죽창은 사바로 열려 있다. 책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세간의 도리에 대한 스님의 견해가 그것을 증명한다. 세속의 애증에 대해서도 스님은 이렇게 얘기한다.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뻐할 일이 아니요, 미워한다고 해서 꼭 상심할 일도 아니다. 끝 속의 일이나 허공 속에 핀 꽃과 같이, 본래 진실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을 만날 때는 현대인을 위한 정언집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 무심히 던진 듯한 말 속에 담긴 골계미는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능히 뛰어넘는다.

분명 이 책의 요점은 심지(心地)를 밝히는 데 있다. 하지만 세간의 도리를 통해서도 불법의 정수로 들게 하는 독특한 매력(매력)이랄까 이 책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묻는 대로 보고 또 볼 생각이다.

윤재학 / 도서출판 여시아문 편집장 yunjh@buddhopia.co.kr

출판예고

유식의 개요와 형성 배경 등 '유식'의 개념에 대한 체계적 이해

'유식학개론'

(이만 교수/ 민족사)

"그대 앞에 놓인 사물은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없다고 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언어가 진리에 접근하는 데 있어 필요불가결하면서 절제적인 것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불교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특히 유식(唯識)에 이르면 언어표현은 매우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한다. 유식학은 쉽게 말하자면 불교의 논리학이요 심리학이요 인식학이다. 유식학이 난해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달 하순경 나온 『유식학개론』은 유식의 개요와 형성 배경, 학문으로서의 위치, 유위·무위법, 수행론 등 유식 전반을 다룬 학술서다. 일반적으로 유식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불교에 웬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하기

가 어렵다. 하지만 10년 이상을 강단에서 '유식학'만 가르쳐 온 저자가 경험과 깊이를 토대로 체계적 설명을 통해 '유식'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있어 '유식' 입문자에게는 안내서로도 적격이다.

저자 이만 교수는 "유식사상의 체계적인 논리와 심도있는 내용을 담는 데 주력했다"며 "꾸준히 탐구하다 보면 유식이 일상의 삼 자재를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실험철학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장만 독서



마음 닦기

현자 지음
A5신 하드커버 200쪽
현대정사 김영환 역주
CD 부록 포함

"8만 사천 법문"이나 '1700공안'이라는 말이 함의하는 바와 같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참으로 많다. 이는 '근기'라고 하는 중생 지마더의 눈높이를 고려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깨달음의 어려움을 반증하기도 한다. 특히 요즘처럼 갖가지 수행법이 나날대로 회교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심지어는 조계사 주위의 길가에 "10일 만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어떤 수행법 공개 강좌의 선전 문구가 버젓이

나뉘는 걸 보면,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이 만병통치약 같은 수행법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향간의 소문이 거지는 아닌 모양이다.

이 책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우려할 만한 수준의 주장들과는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방법적 새로움을 제시한다. 붓다의 수행법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시공간의 차이

에 따른 변화상과 발전의 성과들을 수행하여 하나의 수행 시스템으로 재조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이를 「유식(數息), 상수(相隨), 지(止, samatha), 관(觀, vipassana), 환(還), 정(淨)」의 여섯 단계로 나누어, 수행의 완성에 이르는 방법론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다만, 불교라는 신앙 행위와 별개로 방법적 보편성에만 초점을 맞춘 지은이의 수행관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는다.

붓다의 수행법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시공간의 차이에 따른 변화상과 발전의 성과들을 수렴, 하나의 수행 시스템으로 재조직하고 있다.

여시아문 추천 범공양 도서 - 부처님 등가임을 맞으며

- 1 붓다 그 생애의 가르침 - 마스다니 후미오 지음, 반영규 옮김/ A5신 272쪽/ 대원정사/ 값 6,000원
- 2 시작하는 마음 - 일타 스님 지음/ A5신 340쪽/ 효림/ 값 5,000원
- 3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 법륜 강, 박수일 역주/ A5신 464쪽/ 정토/ 값 8,200원
- 4 부처님 말씀 - 상일 옮김/ A5신 596쪽/ 현암사/ 값 15,000원
- 5 효행 - 김용덕 지음/ A5신 244쪽/ 불일/ 값 6,000원
- 6 두번째 출가 - 현진 지음/ A5신 272쪽/ 새날/ 값 6,500원
- 7 불교를 찾아서 - 석지현 지음/ A5신 398쪽/ 일지사/ 값 10,000원
- 8 오직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나라다 마하테라 지음, 정동하·석길 옮김/ A5신 542쪽/ 경서원/ 값 12,000원
- 9 고타한 숲속의 연못 - 책 편집, 폴 브라이트 역주, 김일권 옮김/ A5신 238쪽/ 고타한 소리/ 값 5,000원
- 10 소설 석가모니 - 이항기 지음/ A5신 304쪽/ 한국문연/ 값 5,000원

여시아문 동선

여시아문 회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월간으로 발행되던 소식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가 이달(99년 3월)부터 매월 1회 현대불교신문의 불서정보란 '여시아문'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책을 가까이 하는 회원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시아문 편집부 -

동선판에 전한나 픽스로 주문하면 전국 어느 곳이나 우송해 드립니다.
* 8,000 이상은 우송료 무료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전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732-1521
팩스: (02)737-0696



이 책을 말한다

어른이 읽는 동화 『연인』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 주는 사랑의 노래

한영우 기자

봄으로 가는 하늘은 때로는 시리도록 파랗다. 그 하늘로 우리들의 슬픔과 외로움은 정처없이 떠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가 쓰다 들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한다.

그때 어디에선가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운주사 대웅전 서쪽 처마근에 달려 있는 종경이야. '푸른목눈이'라는 예쁜 이름도 있어. 내 소리는 대웅전 뒷산 바위 틈에 자란 풀잎 위에도 안고, 부처님께 올리는 밥그릇에도 가 닿는다. 봄날에는 대밭에 죽은 울라오는 소리를 내고, 가을에는 낙엽에 서리 앉은 소리를 내고, 겨울에는 눈 내린 오솔길을 걸어가 는 쓸쓸한 인간의 발자국 소리를 내기도 하지. 내 소리를 듣지 못하면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스님들도 한두 분이 아니라, 절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마음의 평정을 얻지 못한다.

"그런 푸른목눈이에게는 정말 아무런 고민도 없을까?" 생각을 채 마치기도 전에

푸른목눈이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 삶은 외롭고 지루해. 그런 고통이야. 다른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있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 푸른목눈이는 자신을 자극하 사랑해 주는 검은목눈이의 사랑보다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 참된 물고기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푸른목눈이는 마침내 비어(飛魚)가 되어 자유를 얻었다. 마음대로 하늘을 날고 또 날았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린 흰물새매 생각으로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친구를 잃은 시인을 만나 아픔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 시청 옥상에 서 비둘기와 함께 살다 헤어지기도 하고 친구가 된 유치원에 다니는 다슬미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기까지 했다. '봄여름' 집과 낚시꾼에게 붙잡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온갖 고생으로 상처난 몸을 아꼈고 검은목눈이에게로 날아간 것은 조계사에서 만난 화가가 보여준 검은목눈이만 자라왔는지 알고 있는 운주사 그림을 보고 나서였다. "난 여길 떠나기만 하면 더 나은 삶

이 주어지는 줄 알았어.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 가장 중요한 걸 잃고 있었어. 담 슬픈 형식의 삶이라 하더라도 진실된 사랑만 있다면 그것이 곧 창조적인 삶이라는 걸 나는 몰랐어."

운주사 풍경으로 매달려 사는 삶과 현재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 푸른목눈이 비어(飛魚)가 되어 세상을 날아다니는 것은 시련 끝에 다시 풍경으로서의 삶과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된다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연인』(일일원 펴냄). 여기에서 우리는 푸른목눈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가슴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는 진정한 사랑의 풍경소리를 찾아가게 된다.

저자 정효승 시인이 끄집어 낸 풍경소리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자각의 울림으로 와 닿는다. 모자람 없는 것 같은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는 사랑의 노래로 들린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연인』은 겨울 끝에 걸린 풍경소리에 시린 걸음을 멈추게 한다.

내 삶은 외롭고 지루해. 그건 고통이야. 다른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있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 푸른목눈이는 자신을 자극하 사랑해 주는 검은목눈이의 사랑보다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 참된 물고기가 되고 싶다고 했다.